



제 76 회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영화의 예술성을 기념한 예거 르쿨트르

2019년 8월 30일, 베니스 – 예거 르쿨트르는 마법과도 같은 도시 베니스에서 올해 15주년을 맞이한 베니스 국제 영화제와의 파트너십을 기념하기 위해 황홀한 분위기의 그라나이 디 치프리아니(Granai di Cipriani)에서 특별한 디너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주데카(Giudecca) 섬을 둘러싼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라군을 가로질러 산 마르코 광장까지 이어진 동화와도 같은 이 곳은 올해 그랑 메종이 선정한 천체 테마를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언제나 인류에게 시간을 측정하는 수단이 되어준 별과 행성에 대한 경의를 담아 그리고 예거 르쿨트르의 보금자리인 스위스 발레 드 주에서 바라본 밤하늘을 기념하기 위해 천체를 테마로 결정하였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CEO 캐서린 레니에(Catherine Rénier)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훌륭한 영화와 시간의 예술을 기리기 위해 메종의 홍보대사 니콜라스 홀트와 아만다 사이프리트, 니니, 이탈리아 배우 알레산드라 마스트로나르디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모인 게스트들이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모든 게스트는 매혹적이고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밤하늘에 뜬 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네 피스의 아름다운 시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계 전체에 잼스톤을 아름답게 세팅한 데즐링 랑데부 문은 핑크 골드 소재로 다이아몬드의 차가운 광채에 온기를 더하고 반짝이는 마더오브펠을 세팅하였으며,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려한 브레이슬릿을 더해 손목을 리본처럼 부드럽게 감싸는 유려한 라인을 선보입니다. 북극 하늘에 펼쳐진 아름다운 오로라에서 영감을 받아 새롭게 재해석한 두 가지 모델은 예거 르쿨트르의 숙련된 보석 세팅과 핸드 페인팅으로 이루어진 두 가지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기술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다채로운 컬러를 수작업으로 칠해 매혹적인 오로라의 모습을 재현한



마더오브펠 다이얼 주변에는 컬러 그라데이션을 이루는 바게트 컷 사파이어를 세팅한 눈부신 베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예거 르쿨트르는 마스터 그랑 트레이디션 투르비옹 셀레스트를 재해석하여 슬림한 차세대 케이스와 섬세하고 세련된 다이얼을 갖춘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디자인은 심플해졌지만 다이얼에 슈퍼-루미노바™를 사용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아워 마커와 별자리가 눈부신 천상의 빛을 드러냅니다.

파리 르 생크(Le Cinq) 레스토랑의 미술랭 스타 셰프 크리스티앙 르 스퀘(Christian Le Squer)는 영화 예술과 최고급 워치메이킹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를 위해 베니스로 날아와 천체 테마와 잘 어울리며 세팅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스페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영화 제작 예술과 수많은 가치를 공유하며 영화계와 깊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베니스 국제 영화제와의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 영화 예술이 선사하는 감동과 발전에 공헌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예거 르쿨트르는 설립 이래 뛰어난 노하우와 예술적 감각, 그리고 세련된 스타일과 섬세한 디자인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예술 작품들을 선보여왔습니다. 1833년부터 시작된 발명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는 매뉴팩처의 장인들은 리베르소와 마스터,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랑데부, 애트모스와 같이 파인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잇는 컬렉션을 꾸준히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수 세기를 걸쳐 그랑 메종이 구축해온 풍부한 워치메이킹 유산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브랜드의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줍니다.